



소금을 뿌린듯 흐드러진 메밀꽃 3일 제주시 노형동 산록도로변에 메밀꽃이 피어나면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풍경에 취한듯 사진에 담고 있다. 소금을 뿌린듯 흐드러지게 피어난 메밀꽃들의 군무에 흐뭇한 달빛이 없어도 숨이 막힐 지경이다. 강희만기자

국내외 카지노 속속 대형화... 제주는?

파라다이스 이어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건설 착수
일본, 2025년까지 복합리조트 3곳 개장 추진중
제주 카지노 피해 불보듯... "정책적 결단 내려야"

최근 들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카지노 복합리조트들이 개장을 하거나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증가할수록 제주도내 소규모 외국인 카지노는 매출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내 카지노 업계에 따르면 인천 영종도에 지난 2017년 4월 개장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에 이어 미단시티의 투자사인 시저스코리아가 오는 2021년 개장을

목표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고 있다. 파라다이스시티에는 외국인 카지노와 호텔, 쇼핑·놀이시설을 포함한 시설들이 들어섰고 인근 부지엔 K팝 공연장 등을 짓는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영종도에는 2022년까지 1개의 외자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일본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5년까지 3곳의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개장할 예정이다.

이처럼 대규모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개장할 경우 제주도 카지노의 경영난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고객들이 대형카지노와 레저시설, MICE 시설, 테마파크, 쇼핑몰이 있는 복합리조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2월 서귀포시 중문 하얏트리조트에서 신화월드로 확장, 이전한 랜딩카지노는 이전 확장(영업 면적 7배로 증가) 후 매출이 급증했으나 같은해 8월 양지해 회장이 금융부패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후 매출 급락을 겪었다. 양 회장의 체포되자 양 회장과 얽히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중국VIP고객이 이탈하며 3분기에는 마이너스 매출(낮은 홀드율·높은 콤포 지출로 인한)을 기록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인 신화역사공원 랜딩카지노를 제외하면 도내 7개 소규모 외국인 카지노의 매출은 미미하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도내 7개 외국인 카지노 매출액은 약 420억원으로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매출액 962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복합리조트에 있는 랜딩 카지노의 올들어 4월까지 누적 매출액은 158억원이다. 랜딩카지노는 올해 1월 매출액 -16억원, 2월 2억 7000만원, 3월 109억원, 4월 158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한 카지노 전문가는 "다카오의 경우 중국 내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과 주변국 카지노 경쟁 심화에도 매출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클러스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늘어날수록 제주와 같은 소규모 카지노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 카지노를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으로 보고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관광산업으로 육성할 것인지 이제는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주문했다.

고대로그 기자 bigroad@ihalla.com

“미-중 무역전쟁 제주신항만에 불똥”

원 지사 3일 브리핑룸 방문 사업 추진 어려움 피력
“일부 반대측 집단 위력 행사로 2공항 공청회 파행”
영리병원·행정시장 직선제 등 관련 道 입장도 설명



3일 제주도청 브리핑룸을 찾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신항만 조성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타이밍상 불확실성’이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다”며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밝혔다.

원 지사는 3일 오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이날 31일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 폐막을 맞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주포럼 특별세션에 참석해 “제주도와 JDC가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며 제주 신항만 배후단지 건설 계획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사전 협의된 내용이나 구체화된 사실이 있느냐’ 묻자 원지사는 “(송 위원장이) 도와주려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크루즈 포함 사드 제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고 미·중 무역분쟁과 기술 및 금융전쟁이 예상되는데다 올해 상반기 예상됐던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방북도 순연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항

은 무한책임 지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돼야 하지 않느냐”며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무산시키면서, 소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도나 국토부에는 설득·의견수렴 부족하다는 공격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가 행정체제 개편 직선제 주민투표에 대한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한 데에 원지사는 “도의회가 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동의를 묻는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관련 법안을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국제병원의 철수로 인한 건물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인 복지그룹과 사업시행자인 JDC, 인허가 관청인 제주도, 복지병원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방관자로 빠져버린 현 정부 등 4차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JDC 특특튀는 교육특강 16탄**

1월 16일

한라일보사는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내 청소년들의 인생 나침반이 될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영정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물론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각 분야의 멘토를 초청하여 교육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민화 '신과함께', '무안동학', '방방후후' 등을 연재하고, 두 편의 천만관객 영화 시리즈 '신과함께'의 원작자인 **주호민 작가**를 초청하여 **‘상상력은 어떻게 만화가 되는가?’**를 주제로 강의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특강에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JDC 특특튀는 교육특강 16탄

▶ 프로그램 주제: 상상력은 어떻게 만화가 되는가?
▶ 강사 명: 주호민(작가)

- 일 시: 2019년 6월 16일(일) 오후 2시
- 장 소: 제주웰컴센터 웰컴홀
- 대 상: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부모 200명(선착순 모집)
- 신 청: 홈페이지 접수 (http://edu.ihalla.com)
- 수강료: 무료
- 주 최: 한라일보사 / JDC • 후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문의: ☎ 064)750-2523, 2540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후원문의 064-753-3703 **어린이재단**

꿈은 접는 것이 아니라 펼치는 것이라고

초록우산을 만나 깨닫습니다

꿈이 있는 어린이의, 꿈이 있는 초록우산!

기부로 어린이의 꿈을 펼쳐주세요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는 제주도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후원자들의 대표 모임으로, 재단의 아동복지사업 지원, 후원자 개발, 봉사 및 기부활동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